

완도 '하트섬' 주도 상록수림 체계적 보존

〈珠島〉

학술가치 큰 천연기념물
육박나무·생달나무 등
덩굴 제거·해충 발생 조사
보수·치료 사업 지속 추진



하늘에서 본 완도군 주도 상록수림. 산림이 무성한 주도는 섬의 모양에 따라 하트 섬으로 불린다. <완도군 제공>

완도군이 '하트 섬'으로 불리는 주도(珠島) 상록수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천연기념물 보수치료 사업을 추진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주도 상록수림은 1962년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28호로 지정됐으며 원시림 상태를 방불케 할 만큼 보존이 잘 되어 있어 학술 가치가 큰 곳이다.

주도의 면적은 1만7190㎡로 작은 섬이지만 각종 상록활엽수종으로 덮여 있다.

주도에는 육박나무, 구실잣밤나무, 참식나무, 돈 마누, 사스레피나무, 붉가시나무, 매밀 잣 밤나무, 광나무 등 다양한 나무들과 덩굴덩굴, 청가시덩굴, 개머루 등 덩굴식물들이 있다.

주도 상록수림 보수치료 사업을 위한 모니터링 결과 덩굴식물 등으로 인해 육박나무와 생달나무, 구실잣밤나무 등 수목의 수관 및 생육이 억제되고 있었다.

이에 광합성 저해로 수세 약화가 우려됨

에 따라 위해 덩굴을 제거하고 해충 발생 동향, 수세 변화 등을 조사하고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2018년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도에도 지속적인 보

수치료 사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도는 조선시대 봉산(封山)으로 지정돼 벌목을 금지했고 현재 상록수림의

보호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관리 및 학술 목적 등으로 출입하고자 할 때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해남군, 청사 신축 앞두고 18일 '군민설명회' 개최

해남군이 군 청사 신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고자 군민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18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제99회 21세기 해남자치대학' 2부 순서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된다.

신청사는 성내리 54번지 일원 2만 1521㎡에 건축 규모 1만8601㎡로 본청 7층, 의회청사 5층으로 신축된다.

1층은 북카페, 모자휴게실 등 군민이용 공간으로 제공하고 해남역사관(홍보관), 해남특산물 전시장 등을 배치했다.

2층에는 대회의실과 주민소통실, 3-6층은 직원 업무공간, 7층은 CCTV 관제센터, 구내식당이 들어선다.

특히 설계공모 당선작의 해남루는 읍성으로 가로막힌 해남 군민광장과 신청사를 연결하며 금강산(해남읍 뒷산)과 수송성을 중심으로 확충해 북으로는 금강산을, 남으로는 군민광장을 조망하는 군민

소통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기본설계가 확정된 만큼 이번 군민설명회를 통해 군민에게 그동안 추진사항과 확정된 기본설계 및 앞으로 추진계획을 설명한다.

다음 단계인 실시설계도 군민·청사추진위원회를 비롯한 군의회·직원 등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내년 2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한 후 5월 착공할 계획이다.

해남읍성은 역사성 등을 제고해 현 위치에서 정비하고, 읍성의 노거수도 신청사와 조화롭게 정비, 보존할 계획이다.

주민 우려가 큰 교통체증, 주차문제 등도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신청사 주변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현청사 이전·철거 후 조성될 군민광장도 지금부터 철저한 계획을 세워 군민의 공간으로 돌려줄 방침이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완도 오는길 헛갈릴땐 분홍색 차선 따라오세요"

해남 성전 진입구간 2곳

노면 색깔입힌 유도선 설치

"완도로 오는 교차로 차선 헛갈릴 땐 분홍색 따라 오세요."

완도군은 목포와 광주 방향에서 완도를 찾을 완도 방향 도로표지판을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사례가 많아 해남군 성전면에 위치한 교차로 진입 구간 2개소에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했다.<사진>

이곳은 광주와 목포에서 완도, 해남, 진도 방면으로 오는 갈림길로 운전자들이 완도 방향 도로표지판을 보지 못하고 지나치다가 급하게 끼어들기를 하는 등 주행 차량 간 엉킴 및 교통사고 위험 요소가 컸다.

이에 따라 군은 도로를 관리하는 광주국도관리사무소 해남출장소와 협의해 지



난 11월 교차로 구간에 분홍 색깔로 주행 유도선을 설치했다.

정광선 완도군청 안전건설과장은 "지난 4월 해남읍 일원에 처음 색깔 유도선을 설치해 완도군을 찾는 초행길 운전자가 길을 찾기가 쉽고, 사고 위험을 줄이는데 효과가 컸다고 판단해 추가로 설치했다"고 밝혔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진도군, 모범 음식점 21곳 선정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진도군은 위생상태·맛·서비스 삼박자를 두루 갖춘 모범 음식점 21곳을 선정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군은 일반음식점의 위생, 서비스, 맛 등을 평가해 모범업소로 지정하고, 대내·외적인 홍보와 함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심의위원회를 열어 위생상태 등 22항목을 현지 평가해 신청업소 25개소 중 21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업소에는 상수도 요금, 쓰레기

종량제봉투, 북한천기 등 지원과 시설 개선 지원 사업시 우선 지원한다.

또 군에서 제작하는 맛집 책자와 군 홈페이지에도 함께 홍보한다.

진도군 관계자는 "모범 음식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친절한 말 한마디와 따뜻한 눈빛,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다시 찾아오고 싶고 오래 머무르고 싶은 모범 음식점 진도군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겨울 농가 효자작목 부추, 땅콩 해남 대표 특화작목 자리매김

북일면에 공동집하장 완공 시설부추 연중 생산길 열려

겨울철 농가의 효자작목인 부추가 공동집하장 마련과 함께 땅콩 해남의 대표 특화작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해남군은 최근 북일면에서 명현관 군수와 농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사·군 1특화작목'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땅콩부추영농조합법인 공동집하장 준공식을 가졌다.

전남농업기술원의 '1사·군 1특화작목' 육성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8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 기반시설 구축과 공동집하장을 조성해 시설부추의 연중 생산체제를 갖추고 규격농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프로젝트이다.

올 해는 연중 생산을 위한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1ha를 비롯해 공동집하장 300㎡를 조성하고, 연차적으로 가공상품 개발과 브랜드화를 통해 유통망 확대와 6차 산업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시설하우스에서 재배되는 해남 겨울부추는 잎이 넓어 쉽게 물러지지 않은 장점이 있으며, 향기가 좋고 당도가 높아 최고



명현관(가운데) 해남군수가 지역 부추농가 시설하우스를 찾아 잘 지란 부추를 살펴보고 있다. <해남군 제공>

의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여름부추에 비해 2~3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판매되며, 별도로 온도를 높일 필요가 없는 시설하우스에서 재배돼 겨울베추를 대체하는 고소득 작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해남에서는 북일면을 중심으로 22농가가 21ha의 면적에서 연간 1100여t의 겨울부추를 생산하고 있다.

올 해부터는 식자재 유통기업인 CJ프레시웨이와 계약을 체결해 만두소용으로 매달 30t 가량을 출하하는 등 연중 생산체제가 갖춰 나가고 있다.

해남에서는 북일면을 중심으로 22농가가 21ha의 면적에서 연간 1100여t의 겨울부추를 생산하고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문화관광해설가 12명 참여

진도군, 해설능력 평가 대회

진도군이 최근 철마도서관 시청각실에서 2018 진도군 문화관광해설가 해설능력 평가 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능력평가는 지역의 관광정보를 전달하는 문화관광해설가의 자긍심을 함양하고 관광객에게 수준 높은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됐다.

진도군 문화관광해설가 12명이 참여해 해설가로서의 교양과 전문지식·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을 관광지의 전문지식을 묻는 필기시험과 해설 시연평가 등 2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됐다.

대회에 참가한 한 문화관광해설가는 "시연평가를 통해 상호 해설기법을 공유하는 등 해설의 자신감과 노하우를 얻었기 때문에 진도군 관광객 유치 등 내고장 알리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진도군은 차별화된 문화관광해설 시스템 구축으로 관광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 선진지 견학과 현장 체험학습, 문화관광해설가 해설능력평가 대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새로운 방식의 독창적인 백내장 수술

젯토(ZEPTO) 노안·백내장

정확 신속 안전

-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 삽입 위해 수정체 전낭 절개 필요
- 기존엔 칼을 사용해 수기로 하던 전낭절개를 젯토 장비로 깨끗하고 안전하게 제거
- 미세전류를 이용해 360도 원형의 완벽한 수정체 전낭 절개 가능
- 형상기억합금으로 주변 세포에 열 손상을 최소화하고전낭 절개면 인장 강도 높여 안전
- 수기로 제거시 시간이 걸릴수도 있지만 젯토 사용시 수술 시간 현격히 단축
- 동공이 작거나, 백내장 진행이 심하고, 각막이 혼탁해도 쉽게 수술 가능
- 완벽한 전낭 절개로 더욱 안전하게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1566-9988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2019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학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
인문	신학과	16
	한국어교육학과	1
	유아교육과	2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교양교육·상담학 전공)	3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성악·음악학 전공)	7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사범	사회복지학과	5
	사회복지학과(D.S.W.)	5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코칭심리학과(D.Psy.)	5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5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0
대학원	신학과(Th.M.)	25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한국어교육학과(M.Ed.)	20
	음악학과(M.A.)	6
음악대학원	실용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원서접수 : 2018. 12. 29(토) ~ 2019. 1. 3(목)

전형일 : 2019. 1. 10(목)

사랑과 감사의 64년 1954~2018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혁신로 36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